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

어린이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이강호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업부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도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피부색도 다른 아이들을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세계화가 되는 것이 영어를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저편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유니세프와 맺은 10년 인연

뜨겁던 여름은 가고 아침과 저녁의 선선함을 느낄 때면 연말카드 판매에 대한 걱정 등에 퇴근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 때가 있다. 그때마다 필자는 10년 전 유니세프와 첫 인연을 맺은 당시를 떠올린다. 94년 5월초 퇴근길에 전철 선반 위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에 게재된 유니세프의 직원 채용 광고를 보는 것이 필자와 유니세프와의 첫 대면이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의 연을 맺으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만일 그 시간에 전철을 타지 않았다면 만일 선반위의 신문을 집지 않았다면...

유니세프로 직장을 옮기고 난 직후 주위에서 심지어는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 '우리나라에도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피부색도 다른 아프리카 아이들, 베

트남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모르겠다.'는 말을 아직도 자주 듣는다.

어린이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혹은 '글로벌'이란 단어는 매일 가장 큰 활자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요즘은 세계화를 위해 서방국가의 웃음거리 기사가 될 정도로 아이들의 영어의 'L'과 'R' 발음을 위해 혀 밑 부분을 자르는 수술도 하고, 방학 때면 영어교육을 위해 선진국으로 영어 연수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지만, 아직도 피부색이 다른 개발도상국 - 르완다, 탄자니아,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등 - 어린이를 위한 미래의 행복과 희망을 나누기엔 아직도 우리는 야박하기만 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3만 명, 1년에 1천 1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국의 선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액이 국민 1인당 400원이 채 되지 않는 363원이다.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커피 값과 비슷한 돈을 지구의

죽어가고, 학교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억 1천만 명에 이르고, 또한 2억 5천명의 어린이가 빈곤으로 인해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쟁으로 20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매년 100만 명의 어린이가 매춘 시장으로 팔려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피부색, 언어, 지역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도움은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

진정한 세계화, 조그마한 정성 나누기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굶주리고 추위에 고통을 받는 한국 어린이를 위해 우유, 의약품, 모포를 우리와는 피부색, 언어, 지역이 다른 서방국가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 어린이의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다. 그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은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 성장하여 1인당 국민 총소득을 12,000불의 경제대

저편의 어린이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기부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동료들에게 자판기 커피로 인심 쓰지만,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4개의 100원짜리 동전만으로 어린이의 미래와 행복을 찾아 주기엔 너무 부족하다.

얼마 전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올림픽 개최국 그리스의 국민은 약 1,300원을 우리의 월드컵 영웅 히딩크의 나라인 네덜란드 인은 약 8,900원을 네덜란드가 아닌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생명과 희망과 미래를 위해 후원금을 내고 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세계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저편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의 조그만 정성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 저 편의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